

사우회 창립 29주년 기념 단합대회 열려



기온이 30도에 이르는 초여름 5월 16일, 200여명이 참석한 단합대회가 MBC문화동산에서 열렸다. 정태식(기술) 회원이 클래식 기타 연주로 분위기를 띄운 뒤, 단체 기념촬영을 마치고 고창근(ANN) 회원의 사회로 국민의례, 사가 제창에 이어 등단한 차인태 사우회장은 이곳이 40여년 전 “MBC 청룡야구단의 연습장”이었음을 회고하고, 29년간 사우회를 이끌어 오신 전직 임원들께 감사를 표했다. 또한 “연로하신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탁자

와 의자를 준비했으니 편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드렸다. 김민식 고문과 구순의 진필호 회원의 건배사가 있었고 이어 이재휘(편제) 회원이 연주하는 은은한 피아노 곡을 들으며 회원들은 MBC가 제공한 이동갈비로 풍성한 오찬을 즐겼다. 행운권 추첨에서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푸짐한 선물을 받았다. 본사 이정상 총무부장과 직원 그리고 의무팀(이유진)도 회원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수를 받았다.



〈사우회 발전기금 조성 추진위원회〉 발족

사우회는 지난 3월 ‘사우회 발전기금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수량 고문)를 발족했다.

사우회 재정의 주류인 문화보험 수익이 보험대상물의 감가상각과 새로운 보험대상물 부족 등의 이유로 해마다 감소하고, 본사의 행사 지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행사를 원활

하게 하기 위해 회무규정 제8조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임원 7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기금 2억을 목표로 사우회 안팎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기금을 내신 분의 명단은 홈페이지와 카페 및 사우회보에 계속 게재하고 있다.

발전기금을 내주신 분들(5월 20일 현재)

- | | |
|------------------------|---------------------|
| ▶ 김수량(기술.고문) 100만원 | ▶ 최근진(기술.이사) 100만원 |
| ▶故 최인열(기술) 40만원 | ▶ 이원하(기술) 50만원 |
| ▶ 이결범(편제) 50만원 | ▶ 김상옥(편제.부회장) 30만원 |
| ▶ 신현욱(관리.부회장) 20만원 | ▶ 정연호(ANN.부회장) 20만원 |
| ▶ 양영철(보도.부회장) 20만원 | ▶ 이상근(기술.감사) 20만원 |
| ▶ 박종규(기술.부회장) 20만원 | ▶ 한윤희(관리.감사) 20만원 |
| ▶ 이용구(업무.부회장) 20만원 | ▶ 조일수(ANN.이사) 20만원 |
| ▶ 고창근(ANN) 20만원 | ▶ 권혁화(ANN.이사) 10만원 |
| ▶ 장덕수(편제.이사) 10만원 | ▶ 조승필(관리.이사) 10만원 |
| ▶ 김승월(편제.이사) 10만원 | ▶ 최동윤(관리.이사) 10만원 |
| ▶ 최 천(기술.이사) 10만원 | ▶ 이재은(보도.이사) 10만원 |
| ▶ 한귀현(업무.이사) 10만원 | ▶ 차경호(보도.이사) 10만원 |
| ▶ 신명현(업무.이사) 10만원 | ▶ 이석일(보도.사무처장) 10만원 |
| ▶ 이상이(보도) 10만원 | ▶ 김진홍(관리) 10만원 |
| ▶ 구종희(편제) 3만원 | ▶ 정수열(편제) 3만원 |
| ▶ 김용직(중앙엔지니어링 회장) 50만원 | |



이원하



이결범



이상이



김진홍



구종회



정수열

제주 MBC 연중캠페인

호의 멘글게마썸 제주

(함께 만들어가요 제주)

차인태 회장, 임원진·동호회장단, 고문단과 상견례



임원진 회의

차인태 사우회장은 3월 8일 신입 임원들과 상견례를 가진데 이어 3월 21일 동호회 회장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차 회장은 금년도 사우회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특히 한시적 기구인 '사우회 발전기금 조성계획'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3월 29일에는 사우회 고문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가졌

다. 노서을, 우윤근, 김민식, 김수량, 이연현 고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차 회장은 사우회 현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고문단의 조언을 구했다.

이에 고문단은 '어려운 때에 사우회를 맡아 고생이 많겠다'는 격려와 함께 '사우회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조성에 뜻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상임부회장과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차인태 회장, MBC 최승호 사장과 업무 협의



4월 12일 마포의 한 식당에서 차인태 사우회장과 최승호 MBC사장과 업무 협의가 있었다. 차 회장은 사우회에 대한 MBC의 지원에 감사 표하고 시청률과 경영 회복을 위해 분투하는 경영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최 사장은 '오늘

날의 MBC가 선배님들의 열정으로 그만큼 성장했음을 잊지 않고 있으며, 힘닿는 데 까지 사우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변창립 부사장, 조능희 기획조정본부장이 배석했고 사우회 측에서는 김상옥 상임부회장이 배석했다.

'주간MBC'가 온라인 'MBC뉴스레터'로



MBC에서 그동안 발행되던 '주간MBC'가 'MBC뉴스레터'로 거듭

납니다. MBC 공식 홈페이지의 뉴스레터 섹션에 게시되는 'MBC뉴스레터'는 MBC의 변화와 비전을 공유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메일링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새로운 탐험에 나서는 'MBC뉴스레터'에 사우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문단 초청



동호회장단

봄철 낚시대회 마쳐



낚시대회(회장 김종수)가 4월 19일 오전 6시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선두포 수로에서 열렸다. 18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는 안병태(관리)회원이 28.5cm의 붕어를 낚아 우승을 차지했다.

2등은 정인영(편제)회원이 24.0cm를, 3등은 정태식(기술)회원이 차지했는데 처음으로 낚시대회에 참가해 22.8cm 붕어를 낚아 저력을 과시했다.

행운상은 22.1cm의 붕어로 안



타깝게 3등을 놓친 강정수(관리)회원에게 돌아갔다.

이번 대회는 일정이 앞당겨진데다 세찬 바람까지 불어 조황은 좋지 않았지만 낚시에 대한 열정과 선후배간의 돈독한 정은 어느 해보다 뜨거웠고, 계측이 끝난 후 잡은 고기를 모두 방생하고 낚시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 자연을 아끼는 MBC맨의 모습을 보여줬다. 올해도 흥국화재에서 오찬을 협찬해 회원들로부터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봄철 등산대회 마쳐



등산대회(회장 박한성)는 4월 30일(화) 북한산 둘레길에서 열렸다. 51명의 회원들은 출발에 앞서 박한성 산악회장의 선도로 10여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고, 차인태 회장을 대신해 인사말을 전한 김상옥 상임부회장은 '좋은 날씨에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아 건강한 생활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오전 10시 20분, 아카데미 하우스를 출발해 우이동 경전철역 입구까지 6km 구간을 2시간 정도 걷는 동안 독립유공자 묘역과 손



병희선생 묘소에 이르는 둘레길을 산행하면서 신록이 짙어지는 숲속의 정취를 만끽했다. 4.19묘지에서는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이종구씨로부터 묘지 연혁과 현황을 들었다.

이날 산행에는 김세중 회원(88세)과 홍일점 강북주 회원(대전)이 돋보였다. 산행을 마친 회원들은 단골식당인 '거북이네'에서 식사를 했고, 사무처에서는 타월과 비타민 한 병씩을 회원들께 전달했다.

경 · 조사

■ 구순 ■

고태원(편제) 7/18 전응근(미주) 7/25

■ 팔순 ■

정병수(보도) 6/11 김영기(기술) 6/11 박중규(관리) 6/19
변 건(보도) 6/20 안동진(삼척) 6/20 이상세(편제) 6/28
유길춘(편제) 7/3 박태지(업무) 7/12 조태영(기술) 7/17
이준호(보도) 7/25

■ 고회 ■

방준식(기술) 6/8 조성식(업무) 7/20 이원형(업무) 7/28
김종연(편제) 7/29

■ 회갑 ■

류상철(편제) 7/8 이진숙(관리) 7/14 원만식(편제) 7/19
박은숙(관리) 7/20 이민애(관리) 7/28

■ 결혼 ■

이결범(편제) 아들 3/23 윤재근(보도) 아들 3/31
정남영(관리) 차녀 4/13 김선희(ANN) 딸 4/26
최근진(기술) 장남 5/4 류종현(보도) 장녀 5/18
한순애(관리) 딸 5/25

■ 부음 ■

김도원(보도) 부친상 3/14 장수남(편제) 장모상 3/21
김주배(편제) 장모상 3/5 정운현(편제) 모친상 3/7
조병영(관리) 아들상 4/3 김경철(편제) 부친상 3/31
박우성(편제) 부친상 4/6 김영운(기술) 모친상 4/19
류월상(편제) 장인상 4/27 이상이(보도) 장인상 4/12
홍명표(관리) 모친상 5/17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김광민(관리) 010-0000-5893 차상익(기술) 010-0000-5957
서인성(보도) 010-0000-6153 최노석(보도) 010-0000-1120

■ 연회비 ■

3월: 유흥렬('19) 정국록('19) 금기우('19~21) 임동훈('19) 윤호찬('19)
김종창('19년) 김철순('19) 최영돈('17~19) 표찬일('19) 박성배('17~18)

조성식('18) 최정일('19) 이한수('18~19) 장두호('18~2023) 김대수('19)

4월: 이연경('19) 강현식('19) 김영균('19) 조석영('19) 황종휘('19)
반주원('19) 김상옥('18~19년) 박창순('19) 신해명('19) 김종오('19)
백명순('19) 이종화('19) 최대홍('18~'20) 김철영('19) 김휴선('19)
이기선('19) 정승호('19) 문용수('18~19) 03/28 이방근('19)
김형국('14~16) 강유현('18) 노성석('19) 김삼량('19) 인우삼('20)
서상용('19) 정석진('16) 전지웅('19) 권혁화('18) 이하결('19)
박춘수('18~'19) 전정익('19) 전병욱('19) 유무정('17~19)

■ 평생회비 ■

남정우(기술) 01/21 김태현(편제) 01/22 오정훈(관리) 01/23
지수환(관리) 01/24 정우석(보도) 02/11 함윤수(편제) 02/18

번호 / 주소 변경

편제 : 김현종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30
김정옥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2로 59번길
김해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40,
김우룡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9
장수봉 경기 화성시 동탄지성로 319-19,

보도 : 박래양 서울 송파구 장지동849
김강정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18번길 15,
장기재 원주시 치악로 2033,

ANN : 김충식 서울 강남구 선릉로 8,
김선희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7,

기술 : 차상익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업무 : 심준보 서울 강동구 명일로 172
양건승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135,

관리 : 박미숙 서울시 은평구 백년산로67,
최한상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50,
최정순 서울 종로구 송인동길 21,
권태석 경남 거창군 가조면 용전3길
이성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1길 17,
장두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정상열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174번길

대구 : 강유현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30길 7,
엄웅열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42길 14

미주 : 김철수 Los Angeles, CA 90057 U.S.A

회비 및 발전기금을 받습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무규정에는 “연회비를 5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회비 미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우회는 발전기금을 이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사우회를

회비 납부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02-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차기동(업무)
4월 4일 지병인 심장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1968년 업무부에 입사해 사업국 부국장을 마지막으로 1994년 퇴직했다.



변영우(편제)
4월 1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3세. 1982년 영상제작부에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1993년 SBS로 옮겨 2007년 퇴직했다.

회/원/동/정



이상훈(업무)
용인에 있는 학교법인 단호학원(용인대학교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원은 지난 12년간 단호학원의 이사로 재직해왔다.

김영철(편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을 위한 재정 및 복지지원에 대한 심사, 결정을 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이사에 선임됐다.

안성일(보도)



YTN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안 회원은 보도본부 논설위원과 인터넷뉴스센터장,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이원하(기술)



3월 29일 전주이씨 광평대군(세종대왕 아드님) 파종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광평대군파 종친회원은 전국에 6만 여명이다.

김기도(보도)



4월1일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헌정회 정책실장으로 선임됐다. 김 회원은 제14대 국회의원(민자당, 경남 사천)을 지냈다.

최영근(편제)



전남 화순 폐광지역에 어린이 체험관, 캠핑장 등을 운영하게 될 '키즈라라'(2020년 말 준공)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이순임(관리)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대표와 서초포럼 아시아담당 총괄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 MBC 재직 때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윤능호(보도)



하림그룹이 운영하는 NS홈쇼핑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모스크바 특파원, 정치부장 등을 거쳐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으로 활동했다.

김광곤(기술)



성남시 고등동 7만 여평 부지에 '영화마을', '테마파크단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느라 본업인 오디오를 제치고 건설 시행사 대표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신낙균(편제)



북한산 자락 은평 한옥마을에 카페 '보드레'를 오픈했다. 3호선 연신내역 3번 출구로 나와 하나은행 앞에서 버스를 타고 진관사 하차.



동/호/회/소/식



문비회(회장 김규홍)

3월 31일 17명의 회원이 남산 산행을 마치고 장충동 족발집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김규홍 회원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고 유재식 총무는 연임됐다.

한문공부, 재미 있습니다



김 병 문(관리)

한문에 대한 기억은 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당書堂 훈장訓長을 하였던 할아버지 덕분에 여섯 살 때부터 서당에 출석했다. 서당에 처음 가면 천자문千字文, 사자소학四字小學, 추구推句 중에서 선택해서 가르쳤다. 나는 추구부터 시작해서 만물집萬物集, 당음唐音, 명심보감明心寶鑑, 소학小學, 대학大學까지 배웠다.

당시 공부 방법은 하루 종일 책을 소리 내서 읽고 다음 날 훈장님 앞에서 책을 덮고 전체를 외워야

하는데, 제대로 외우지 않으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은 같이 해도 진도는 각기 달랐다. 어떤 학우는 오랫동안 다녀도 암기를 제대로 못 해 추구한 권 다 배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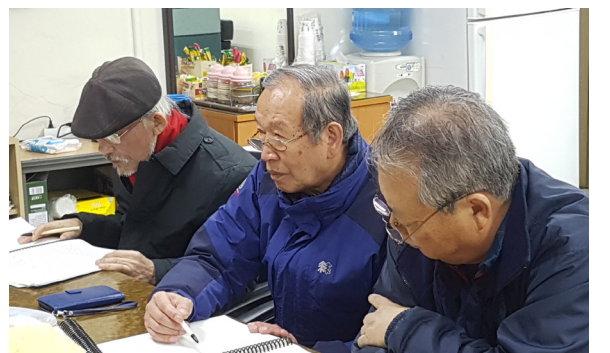
서당에서는 책 한 권을 다 배우고 나면 '책거리'라고 해서 떡과 술, 안주를 준비하여 훈장님을 비롯한 학생 전원이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어려운 학문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수고를 칭찬하고 보람을 만끽하는 자리였다. 시골 서당은 농한기 때만 운영되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만 모여서 공부를 하는 전형적인 주경야독晝耕夜讀이었다.

사우회 한문공부반에 다니기 시작한지도 어언 1년 6개월이 됐다. 처음 한문공부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문 잘하는 사람들만' 다니

는 것으로 생각해서 선뜻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갈까 말까 망설이기를 십여 차례, 그러나 지금은 '다니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즐겁다.

한문공부를 시작하고 좋은 점이 많다. 우선 갈 곳이 있어 좋다. 매주 화요일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복습과 예습을 한 시간 이상 하고나서 책가방을 챙겨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 학교 다닐 때 이런 기분으로 다녔으면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고 실력이 쑥쑥 늘었을까 생각하면 쓴웃음과 함께 후회가 밀려온다. 뒤늦게 철이 들었다고나 할까.

한문공부를 하면 특히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의가 말한다. 공부를 해보니 '과연 그럴까' 싶었다. 이해와 암기와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뇌를 쉴 새 없이 움직



여야 하기 때문에 치매 따위가 발붙일 틈이 없게 될 것이다.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노인의 약 10%가 치매라는데, 열심히 머리를 쓰게 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해 준 사우회에 새삼 감사하는 마음이다.

지금은 격몽요결擊蒙要訣, 논어論語, 맹자孟子를 배우고 있다. 참석하는 회원은 양진수(동호회장), 권혁화(훈장) 외에 유길춘, 권오형, 이해걸, 박종완, 문성수, 한박무, 김병문, 이순임 등이다.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공부한 후 점심식사를 같이 하며 즐거운 담소를 나눈다.

더 많은 사우회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인터뷰

격동의 수레바퀴, 언론의 길 60년

4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인생 60년'을 정리한 저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별 좋은 5월, 온화한 미소가 가득한 얼굴의 주인공과 차 한 잔의 대화를 나눴다.



박기병(관리)

미수 기념문집 출간을 축하합니다. 책을 읽어 보니 단순한 회고록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체계적으로 쓴 회고록이나 자서전이 아니고 60년 언론계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겪었던 일들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써 본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 또한 저널리스트의 의무가 아닌가 싶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충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셨나요

1957년에 대한통신사 정치부 기자로 입문해서 국제신보, 부산일보 등에서 22년간 신문기자로 활동했구요. 1980년에 MBC로 옮겨온 이래 지상파, 케이블, 민방 등 방송현업에서 30여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는 저널 잡지 발간 일을 계속하고 있지요. 신문사에 있을 때 한국기자협회장을 두 차례 역임했구요, 방송계에서는 18년간 CEO로 일하면서 방송사 창업 등 어렵지만 보람된 일들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추억이 있겠지만 특히 기억나는 경험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6.25 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경험부터 1974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에 지방지 기자로선 처음으로 참여했던 경험.

강원도민의 성원을 받으며 시작한 강원민방 개국이 지배주주의 차명주식 문제로 방송 재허가 과정에서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이르렀지만 우여곡절 끝에 살려 낸 경험.

1994년 케이블TV가 도입되면서 구로케이블TV를 설립해 6년간 CEO로 일하며 기반조성을 하던 경험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죠.

특히 20여 년간 국회 출입기자로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 등은 평생 잊을 수 없



는 기억들입니다.

문집 출간을 계기로 후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내일을 살아가야 할 세대들에게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귀중한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60년 언론생활을 하며 수시로 느꼈던 제 생각과 경험을 압축하면 이 한마디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대답: 편집장



이곳이 '나의 천국'



박영태(기술)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교수로 어느 새 7년. 강의 과목은 '카메라연기'로 PD출신 교수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수업 진행상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어야 하는데 얼굴이 비슷해 보여 사진을 찍어서 외우기로 하고 오리엔테이션시간에 카메라로 찍으려 했더니 학생들이 "준비도 안하고 왔는데 사진을 찍는다"고 난리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찍었는데 학생들이 나름 예쁘게들 하고 왔다. 사진에 이름을 넣어 시간 날 때마다 외어서 일주일 후 수업시간에 출석을 부르는데 처음 본 학생이 있어서 "지난주에 사진을 찍었냐"고 물어보니 "찍었다"고 한다.

사진을 다시 보니 지난주에는 노랑 머리였는데 오늘은 검정색으로 바뀌어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였다. 머리모양, 화장상태, 옷 등이 바뀔 때마다 헛갈려 완전히 외울 때

까지 시간이 제법 걸렸다. 이렇듯 어렵사리 학생들 이름을 외어봤더니 어디서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졸업생을 만났을 때 이름을 불러줬더니 그렇게 좋아하고 고마워한다.

MBC미주지사에 근무하는 동안 비는 시간에 대학에서 사진을 배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기술국 모임은 거의 찍었다. 송별회, 단합대회, 결혼식, 돌잔치 등등.

뉴스센터에 근무할 때는 앵커, 아나운서, 기자, 탤런트 등을 뉴스센터 세트를 활용해 찍었다. 엄기영, 김주하 앵커를 많이 찍었고 아나운서실 직원들은 거의 다 촬영했다.

앵커나 아나운서가 뉴스센터에서 따로 사진 찍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그분들한테는 아마도 귀한 사진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000년 4월 여의도사옥 5층 E스튜디오에서 "경제매거진"을 녹화할 때 처음으로 찍은 이래 여러 차례 사진을 찍었는데, 2004년 국회의원이 된 후 의정보고서, 선거벽보, 명

함 등 많은 곳에 내가 찍은 사진을 활용했었다. 그런데 막상 앵커 때 뉴스센터에서 찍은 사진이 없어 많이 아쉬워했다.

문화방송에서 근무할 때는 사진 찍을 모델들이 많아 어렵지 않게 모델을 섭외할 수 있었는데 학교에 와보니 상황이 달랐다.

모두가 낯선 얼굴들이라보니 선뜻 사진을 찍자고 하기가 좀 그랬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프로필사진을 찍고 싶으면 3명 정도 모여서 오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다.

'왜 3명 정도 모여서 오라'고 했느냐 하면 한 명만 놓고 찍으면 촬영분위기가 좀 경직될 수도 있는데, 3명이 오면 각자의 의상도 바꾸어 입을 수 있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곳을 고쳐주기도 하고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이다.



방송연예과 학생들은 대부분 인물이 좋아 사진 모델로 손색이 없고 학과 특성상 사진 찍을 일도 많다. 1년에 4차례 정기공연이 있고 그때마다 팸플릿 사진, 공연사진을 찍는데 언제부턴가 그 일이 나에게 맡겨졌다.

내가 찍은 사진을 외부 오디션에 활용하는 학생도 있어서 어떤 학생은 '오디션에 합격하면 제일 먼저 전화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문화방송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고, 게다가 나의 취미인 사진 찍기를 계속할 수 있는 이곳은 그래서 '나의 천국'이다.

〈특별기고〉 MBC사우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MBC사우회 회장
김광일

MBC사우회 차인태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차인태 아나운서' 하면 무엇보다 MBC의 장수프로그램 "장학퀴즈"와 "별이 빛나는 밤에"가 생각납니다.

그 시대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압도적인 시, 청취율과 인기를 유지하셨기에 지금도 중, 장년층 누구나 알아보는 유명인이시고, 저 역시 좋아하는 지성인 중 한 분이시기에 이번 MBC사우회 회장과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더욱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KBS사우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사우회를 이끌어 갈 기술직군 출신의 김광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KBS사우회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KBS사우회는 1989년 6월 1일 KBS와 MBC사장을 역임하신 崔彰鳳 초대 회장님을 모시고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발했습니다.

그 후 30년간 15대 집행부를 거치면서 많은 선배님들의 노력과 봉사로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창립 초기에는 회원 수 300여명으로 발족했지만, 2009년에 1,000명을 돌파했고, 2019년 3월말 현재 회원 수 2,810명으로, 제 임기 중 3,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사우회는 도청 소재지에 있는 9개 지회와 미국 LA에 있는 미주지회까지 총 10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4일 사우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방송사료들을 모아 사이버 상에 전시하여 방송 사료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사이버 박물관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입원이 점차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 임기 중 뚜렷하게 개선될 징후는 없으나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운영 목표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방송이 시작하지 92년이 되는 해로서 8년 후면 '한국방송 100년'이 됩니다.

점차 자리 매김하고 있는 다매체, 뉴미디어 시대에 본사인 KBS가 국가기간 방송의 역할을 굳건히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KBS사우회의 희망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태동하여 비슷한 연령을 갖고 있는 MBC사우회와 KBS사우회의 무궁한 동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와 존경과 배려, SBS사우회의 덕목입니다



SBS사우회 회장
손석기

지난 주말 몇몇 사우들과 교대역 부근에서 당구를 친 후의 조출한 저녁자리. 서로 칭찬 일색. 보잘 것 없는 실력임에도 칭찬을 주고받으니 때때로 우리는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칭찬을 즐기는 소소한 행복 속에 함께 합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SBS사우들의 3대 덕목입니다.

1991년 라디오와 TV를 개국한 "SBS"에서 퇴직한 사우들의 모임인 "SBS사우회"는 2006년 창립총회로 결성됐으니 9월이면 13돌이 됩니다.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복리증진과 SBS및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SBS사우회는 과거 선배 회장단의 아름다운 노력 덕분에 가입회원이 600명에 이르렀습니다.

회원들은 요산요수회, 음악감상

회, 바둑회, 문화예술회, 당구회, 골프회, 수목화회, 여성 동호회에서 각종 취미활동과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은 매년 늘고, 활성화 되고 있으며 특히 몇 동호회는 연합하여 4월 초 '남도 유채꽃 트래킹', '섬진강 벚꽃 드라이브', 문화체험도 함께 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봄, 가을 단합대회 겸 야유회 행사가 있는데, 올봄 야유회는 경기도 마장호수에서 할 계획입니다.

SBS사우회는 선배 고문과 운영위원, 각 동호회 회장단의 의견을 모아 회장단에서 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상호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마음, 타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줄 아는 능력, 칭찬받기 위한 칭찬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 받는 유일한 선물이라는 자세,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쓰고 염려해 주는 분위기가 사우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겨운 "MBC사우회"는 규모도 크지만 내실 있고 지역별 모임도 매우 활성화 돼 있어 사우회 모임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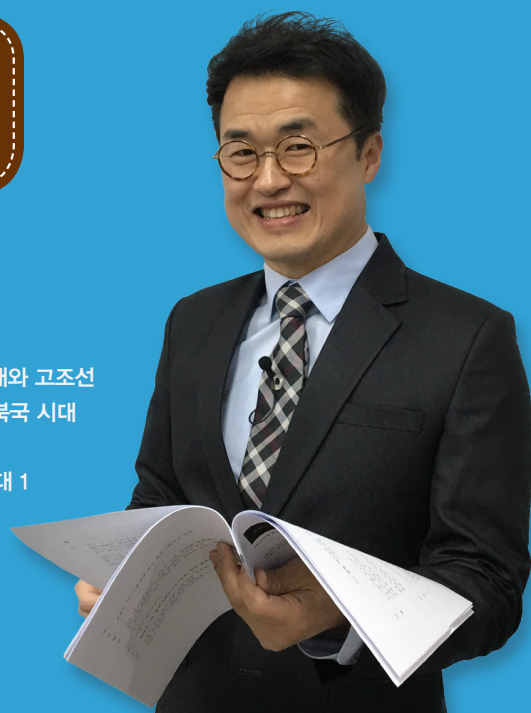
신임 차인태 회장님께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큰별★샘 최태성의 『초등 별★별 한국사』



초등 별★별 한국사 시리즈 (전7권)

- 1권 역사가 시작되고,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열린다 _ 선사 시대와 고조선
- 2권 삼국이 발전하고 남북국 시대가 열린다 _ 삼국 시대와 남북국 시대
- 3권 세계와 교류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다 _ 고려 시대
- 4권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새 나라 조선이 세워진다 _ 조선 시대 1
- 5권 조선에 변화의 바람이 일다 _ 조선 시대 2
- 6권 근대 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독립을 외치다 _ 근대
- 7권 시련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건설하다 _ 현대



방송보다 어려운 농사, 포도 농작 7년!



장 덕 수(편제)

■ 『무농약 포도농사』를 지은 지 어언 7년. 그 일곱 번의 포도농사 동안 천 평짜리 포도밭에서 제대로 포도를 수확해 본 것은

세 번에 불과했다.

7년 전, 포도농사를 시작한 첫 해에 포도나무 80%가 동해凍害를 입어 싹을 제때 틔우지 못했고 대부분의 나무가 죽었다. 그 죽은 나무들 밑 동지에서 어쩌다 새싹이 돋는 것을 다시 받아 키우고, 완전히 죽은 자리에는 새로운 묘목을 심고 해서 포도밭다운 모습을 만드는데 삼 년여,

그때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 이틀간만 농사일을 할 때여서 더욱 정신이 없었던 기간이기도 했다. 주말만 되면 묘목관리하고, 퇴비 뿌리고, 차광막 관리하고, 물대기 작업하고, 유기농 약제 뿌리고 등등 천 평짜리 포도밭의 일은 끝없이 이어졌다. 좋아하던 등산과 골프도 전폐하고 주말 이틀 동안 포도밭에만 매달렸다.

그 후 70%까지 회복된 포도밭에서 얼마간의 수확다운 수확을 할 수 있었다. 가장 잘된 해의 포도수확량이 3000kg 정도. 미흡하나마 포도밭의 명분을 이룰 정도의 수확다운 수확을 할 수 있었다.

퇴직을 하고 온전히 포도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포도농사를 짓겠다고 각오

를 새롭게 하고, 포도밭에 열심히 매달렸다. 그런데 지난 겨울(2017-2018) 유례없는 혹한이 한반도를 덮쳤고, 포도밭이 있는 가평군 상판리 산골의 수은주는 최고 영하 30도에 육박했다. 그해 여름 갈반병으로 몸살을 앓던 포도나무들이 강추위에 죽어 나갔다. 퇴직하고 포도농사에 전념해봤자 자연의 냉혹함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7년 전 처음 포도농사를 시작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 작년에 재현됐다. 80%의 나무들이 죽거나 싹이 트질 않았다. 제때 싹이 튼 20%만이 포도수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도농사는 망한 판정을 받은 것이었다.

그나마 지난 여름의 혹서는 20%의 포도수확도 어렵게 만들었다. 기억하는가. 지난 여름 40도를 넘나들던 더위를.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란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결국 작년 포도농사 수입은 0%! 그리고 지금 2019년 2월, 다시금 포도농사 준비를 한다. 포도밭에 있는 350여 그루의 포도나무들 중에 생명을 부지하고 버티는 나무는 200개 정도. 150개의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삼년을 공들여야 키워야 한다. 이러면서 나는 포도농사를 짓고 있다.

■ 5, 6년 전부터 우리 ‘맑은뜰’ (내 포도밭과 텃밭이 있는 터를 이렇게 칭한다)에 야생동물들의 출현이 빈번해 졌다. 산토끼를 비롯해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오소리 등등. 그 중 가장 무서운 동물이 멧돼지다. 멧돼지는 포도밭의 차광막을 들쳐 내고, 땅을 헤집어 지렁이를 잡아 먹는다. 그러면서 포도밭의 땅을 마구 파헤쳐 천 평의 포도밭 전체를 헤집어 놓는다. 땅속에 뻗어있는 포도나무의 잔뿌리들이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포도나무와 열매에는 아직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황포가 진 짜 심각한 것은 포도밭 아래에 있는 이백 평짜리 텃밭이다. 멧돼지들은 농약을 치지 않는 내 밭에 많은 지렁이들이 있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 포도밭을 통해 텃밭으

로 습격해 들어온다. 그러고는 주둥이로 밭을 파헤쳐 지렁이를 잡아먹으면서 쑥대밭으로 만든다. 포도밭, 텃밭 모두에 초록색 그물 형태의 일명 ‘고라니망’이라는, 높이 1.5미터의 그물을 구입해 천 평 밭 둘레에 쳤지만 그 정도 그물망은 멧돼지에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멧돼지는 고구마, 옥수수, 돼지감자 등을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멧돼지 출몰 지역에서는 가급적 그런 농작물을 심지 않는게 좋다. 그래도 고구마와 돼지감자는 꼭 필요하다 생각해 매년 맘을 졸이면서 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내게 포도농사법을 전수해 주는 인근 농부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강원도 어디선가 멧돼지 퇴치용으로 밭에 현수막을 쳤더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수막! 우리가 ‘플래카드’라고 부르는 거리의 현수막이 멧돼지를 막을 수 있을까? 어쨌든 멧돼지 퇴치를 위해서라면 뭘 짓인들 못하랴. 면사무소 창고에 현수막이 가득했다. 거리에 방치된 현수막을 수거해 소각하기 위해 모아둔 것이었다. 이것을 얻어다가 포도밭에 둘러쳐진 고라니망에 매달았다. 별의 별 색깔과 모양, 현란한 광고문구가 알록달록 새겨진 현수막이 천 평 포도밭 둘레에 펼쳐졌다. 천 평 포도밭에 알록달록 현수막이 둘러쳐져 있는 모습은 참으로 괴상한 광경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다. 멧돼지의 잦은 습격이 그쳤다. 멧돼지가 습격을 멈춘 것이 ‘현수막’ 때문인지는 역설적으로 현수막이 뚫렸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증명이 됐다. 현수막 설치 후 한 동안 뜸했던 멧돼지의 습격이 어느 날 다시 일어났다. 포도밭 아래 고추밭을 멧돼지가 온통 헤집어 고추의 20% 정도가 엉망이 됐다. 다시 절망! “그러면 그렇지, 현수막도 멧돼지를 막지는 못하는구나 내가 헛된 기대를 했지. ㄷㄷ”

그러면서 둘러쳐진 현수막 상태를 점검하는데, 현수막 한쪽 끝에 약간의 틈이 보였고 멧돼지 발자국이 찍혀있었다. 그 곳으로 멧돼지가 들어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멧



돼지가 현수막을 찢고 들어 온 것이 아니고, 현수막의 빈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무슨 이유에 선지는 모르나, 힘 좋은 멧돼지가 현수막을 뚫지 않는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그러니까 현수막만 꼼꼼히 쳐놓으면 멧돼지는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멧돼지도 영리한 동물이니 이 방법이 언제까지 효과가 있을 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농사! 예상보다 어렵다.

■ 과실나무는 많은 해충과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다. 그렇지만 『무농약 농사』인 경우, 농약을 칠 수 없기 때문에 해충들의 공격을 막는 것이 무척 힘들다. 이른바 ‘유기농 약제’들이 있지만 구충력이 약해 해충을 일시적으로 쫓는 정도의 약효일 뿐이다. 포도의 치명적인 ‘갈반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유기농 약제는 현재 이렇다 할 게 없는 현실이다.

최근 죽어나간 내 포도나무들은 직접적으로는 혹독한 추위 때문이긴 하지만, 농약의 도움 없이 각종 해충 특히 갈반병에 시달리면서 나무의 체질이 허약해 진 것이 원인 중 하나였다.

무농약 포도밭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농약 농민들도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도 왜 무농약으로 포도농사를 짓나구?

농약을 치면 해충들은 즉각적으로 박멸이 된다. 자식같은 포도나무를 해치려는 나쁜 놈들을 농약이 속 시원히 해치워 주는 거다. 그래서 웬만한 병이 창궐해도 나무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농약의 독 성분은 고스란히 뿌리를 통해 나무, 잎, 열매에 남는다. 해충을 죽이는 그 독이 사람에게 좋을 리가 없다. 농약의 독이 포도에 없으면 건강에 좋고, 포도 맛도 좋다.(모양은 좀 안 좋지만)

안했으면 안했지 농약이 스며있는 포도를 팔 수는 없잖아.



돌아보니 반백년!



유수열(편제)

1969년 2월 1일은 MBC '제1기 TV방송요원'으로 뽑힌 63명(PD 21명, 미술 4명, 아나운서 6명, 기술 32명)의 수습사원들이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 지금으로부터 딱 50년 전이다.

세월이 어느새 그리도 빨리 흘러갔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半百年이 훌쩍 흘러갔다.

1969년 1월, MBC는 TV 개국을 앞두고 방송요원을 모집했다.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매력 때문인지 지원자가 문자 그대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100대 1의 경쟁, 시험 장소는 동국대학교.

영어, 국어, 상식, 논문이 시험과목이었다. 시험장에서 유독 눈에 띈 두 사람. 바바리를 걸쳐두고 정문을 걸어오던 하광언은 인천에서 교사를 하다가 왔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은 공군에서 갓 제대하고 푸른색 공군작업복을 입고 온 이연현. 참 옛되고 풋풋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하다

대한민국방송사에 거대한 족적을 만들어낸 '제1기 MBC TV방송요원'들의 명단이다. <편성,제작> 고진, 김영현, 김우룡, 김정숙, 김행신, 나미레, 박진홍, 배귀숙, 성경숙, 신준우, 심봉관, 심상수, 유수열, 육창웅, 이경은, 이연현, 장지영, 정문수, 정태일, 하광언, 한복수 <미술> 김은희, 안영자, 임인택, 주규선 <아나운서> 강안삼, 김윤아, 이용자, 정연호, 정희라, 차인태 <기술> 고규균, 구자걸, 김경태, 김광창, 김규수, 김수량, 김준남, 김찬목, 김창수, 김학균, 김형균, 박명준, 서기환, 안성보, 오학균, 유병천, 윤덕순, 이결범, 이경재, 이교덕, 이영곤, 이영삼, 이주

우, 이현규, 장용, 정구면, 조남복, 조위식, 조정구, 조진희, 천진수, 홍순규(가나다順)

3개월의 방송 교육이 끝나자마자 바로 정동 신사옥 텔레비전 개국현장에 투입되어 뛰기 시작한 동기생들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경쟁을 하면서 젊음을 아무지게 불태웠다.

눈빛만 봐도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동기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을 느끼는 동기생, 그 동기생들 가운데 연락이 닿는 14명이 모처럼 자리를 함께 했다.

이제는 75세 후반에서 80대, 더러는 시원하게 벗겨진, 더러는 백발이 성성한 왕년의 '방송 거인'들이 허심탄회 지나간 세월을 추억했다.

지난 3월 12일, 입사 50주년을 기념하자고 모여서 먹은 마포 설렁탕 맛은 현업 때 먹었던 그 때나 별반 다름이 없었다.

방송을 떠난 후 '제2의 인생'을 사는 모습도 참 다양하다. 평안북도 지사와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을 역임한 차인태, 한국영상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수량, 저명한 교수님으로 방문진 이사장을 역임한 김우룡, 방송진흥원장을 역임한 고진, 교통방송 본부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신용산구역지역개발공사 감사로 아직도 현역인 신준우, 최근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감사를 맡았던 박진홍, 해설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강의에 심취하고 있는 하광언, 취미로 시작해서 이제는 사진예술의 대가가 된 심상수 등 화제로 삼자면 끝이 없다.

안타까운 것은 벌써 저 세상으로 간 동기생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정문수, 정태일, 김행신, 한복수, 김학균, 김찬목, 유병천, 조위식, 천진수 등등. 80고개에서 돌아보니 먼저 세상을 떠난 동기생들이 더 생각난다. 늙었나보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전자랜드

빠른 배송! 깔끔 설치! 가자! 전자랜드

